시민 안전 위한 폭염 총력대응

군산시, 분야별 폭염대비 대책 추진… 폭염대책 긴급회의 갖고 꼼꼼히 살펴

군산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따른 총력대응을 선언했다.

시는 집중호우가 끝나고 이어진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여름철 폭염대비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군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사망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앞서 김미정 부시장은 재난대책본부 재난상황실에서 보건소, 복지정책과 등 협업부서를 소집하고 폭염대책 긴급회의를 실시하며 대응계획 이행사항에 차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겼다.

김미정 군산 부시장은 재난대책본부 재난상황실에서 보건소, 복지정책과 등 협업부서를 소집하고 폭염대책 긴급회의를 실시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폭염저감시설 관련 △그늘막124개소, 스마트 그늘막 13개소 설치완료, △무더위쉼터 경로당 냉방기 사전점검, △주요관광지와 읍면지역 '양심양산대여' 사업, △폭염시간대 살수차량 운영, △수경시설(바닥분수 등) 운영, △농·축산분야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폭염재난도우미 32명 지정운영, △장애인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읍면동 독거노인·거동불편자 유선 및 방문 일일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또, 실내외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현장근로자 쉼터운영 현황 점검, △폭염취약농가 현장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주로 고령층 야외근로자가 대부분으로, 폭염취약계층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에 대비하는 방법은 '물, 그늘(바람), 휴식' 온열질환으로부터 예방하는 3대 수칙"이라며 "기록적인 폭염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달 집중호우로 이 기간동안 군산에는 600㎜가 넘는 강수량을 보였으며 이후 낮최고 기온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집중호우 피해가구 요금 감면

익산시,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 전액

익산시가 신속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100% 감면한다.

시는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상수도 사용료와 함께 하수도사용료, 음식물 수수료, 물이용부담금까지 모두 100% 감면된다.

이번 조치로 5천여 피해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및 공공시설을 포함한 수용가와 대피시설 또는 임시거주 제공시설이 해당된다. 농축산물 피해인 경우는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익산 내 주거시설 사용료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기간은 올해 9월 고지분(7월~8월 사용분)이며 부과된 사용료(수수료) 요금의 100%를 감면하게 된다.

NDMS 피해 확정 가구는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 감면된다. 다만 이재민 대피시설과 임시거주 제공시설은 해당학교장 또는 읍·면동·장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정헌율 시장은 "요금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일상궤도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백제왕궁 달빛' 에 빠진 잼버리 청소년

익산 야간관광 빛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백제왕궁 달밤'에 빠진 잼버리 청소년들이 익산을 연이어 방문하며 대한민국 대표 야간관광도시로 빛나고 있다.

한 여름밤 왕궁리유적과 왕궁리 5층석탑 사이에서 경이롭고 신비한 백제왕궁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은 잼버리 청소년들에게 '또다른 한국의 멋'을 선사한다.

2023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하고 있는 세계청소년들이 '역사, 문화, 음식'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며 익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잼버리스카우트대원과 관련 요원들이 익산을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1일 800여명의 각국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세계문화유산인 왕궁리유적에서 '백제 왕궁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새로운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야간관광으로 입소문을 타 잼버리대원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왕궁리 유적에서 백제 의상을 입고 여름밤 왕궁 5층 석탑 탑을 돌며 소원을 기원하는 탑돌이 체험을 비롯해 사리장엄 만들기, 전통부채 만들기, 백제 왕궁 타투, 서신 체험 등을 펼쳤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은 익산 원광대를 방문해 젊음의 거리인 대학캠퍼스를 즐기고 원불교 총부에서는 한국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백제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또 다른 지역연계 프로그램인 '국립익산박물관'과 미륵사지 방문으로 이어졌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백제 역사의 깊이와 백제왕도 익산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다.

한편 ㈜하림의 오감만족 체험형 견학 프로그램인 '치킨로드'를 참여하기 위해 국제운영요원 3천명이 익산을 찾았다. 익산시 망성면의 하림 익산공장에서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IST(국제운영요원) 하림 방문·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잼버리대회 운영 지원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국제운영요원들은 세계적 먹방템으로 유명한 '한국 치킨'의 진수를 하림공장을 둘러보며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폭염 대비 안전대책 강화"

폭염 대응 요령 ·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적극 홍보

정헌율 익산시장이 폭염 대비 안전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부서별 폭염 대응 체계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취약계층, 현장근로자, 고령농에 대한 예찰, 안전 확인, 행동요령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무더위를 피해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바닥분수, 서동유아생태놀이터 등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일상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 시장은 "최근 여름철 여행 등으로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담당 부서에서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바라며, 직원들도 하계 휴가 기간 동안 개인 건강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호우 피해 비상근무와 복구 작업으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하계 휴가를 통해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일상 업무로 복귀해 속도감 있게 현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과장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시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무더위 속 시민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할 시원한 얼음과 생수를 비치하고,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잼버리 군산우물, 영외활동 참가자에 생수 제공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던 군산우물이 군산을 방문하는 영외활동 스카우터들에게 생수와 이온음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7일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영외활동으로 군산을 방문하는 참가자들에게 페이스북 그룹 군산스토리에서 '잼버리 군산우물'이라는 프로젝트로 무더위 대응을 위한 생수와 이온음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잼버리 군산우물'은 페이스북 내 그룹인 군산스토리에서 운영하는 '군산우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여름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잼버리 영외활동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특별 운영됐다.

배부되는 생수는 '궁전꽃게장(대표 이성일)'에서 지원하는 냉동창고를 활용해 차갑게 얼려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페이스북 내 그룹인 군산스토리에서 운영하는 '군산우물' 프로젝트는 무더위에 지친 군산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생수 나눔 행사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문화재 야행' SNS 인증샷 이벤트 진행

"군산에 숨겨진 야행 명소를 즐기는 사진을 인증하고 군산시 페이스북을 팔로우하면 맛있는 치킨 쿠폰을 드립니다!"

군산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군산내항 및 원도심 일원에서 열리는 '군산 문화재 야행'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SNS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구석구석 숨겨진 문화재를 찾아 찍은 인증샷을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고 시 페이스북을 팔로우 한 후 참여 완료 댓글을 남긴 후, 이벤트 신청 폼을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추첨을 통해 치킨 교환권을 제공한다.

채효 공보담당관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여름밤에 즐길 수 있는 문화재 야행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해 시 페이스북을 통해 알찬 시정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카카오톡 채널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시 공식 SNS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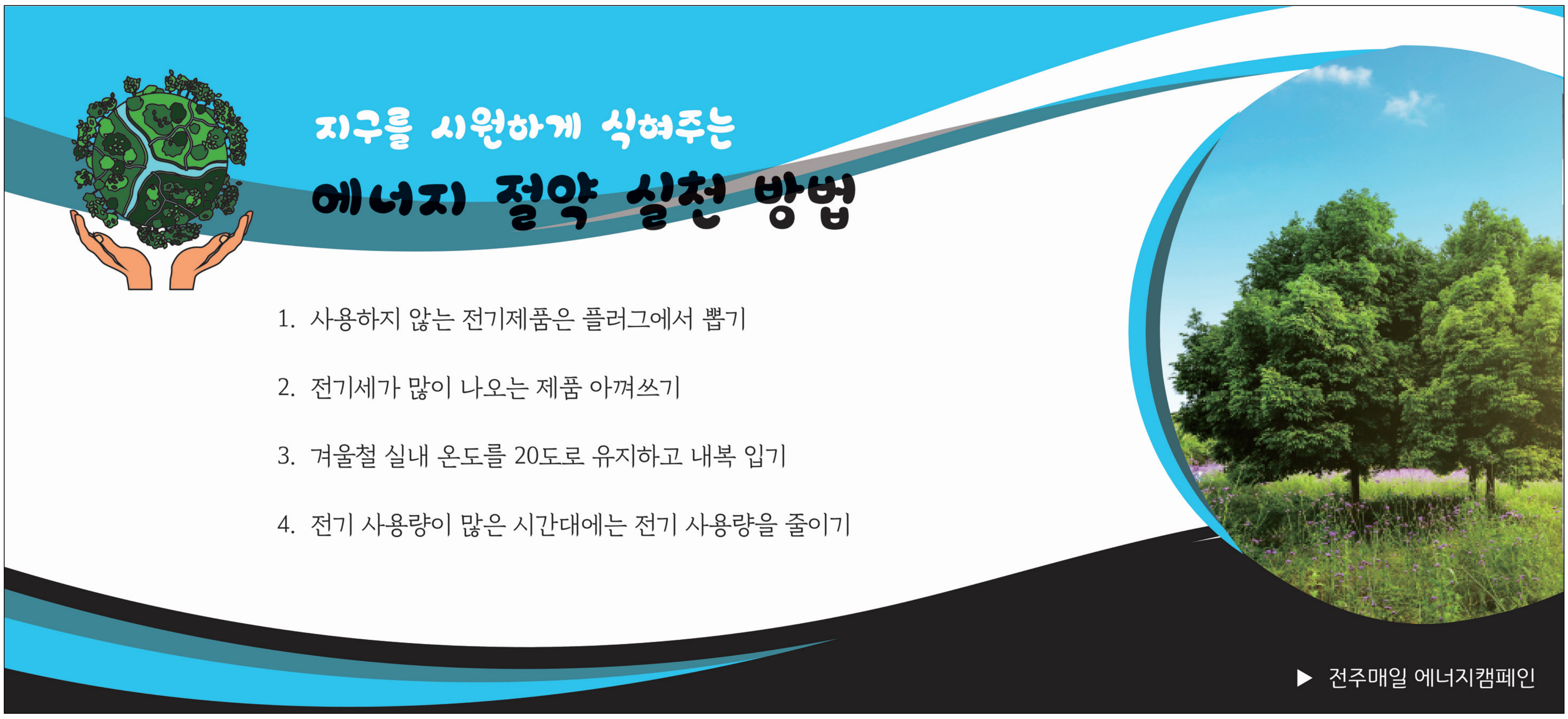
/군산=김판곤 기자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관 건립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익산시는 7일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관의 차질없는 건립을 위해 현재 설계중인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관 건립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관 건립 설계용역은 9월중 완료할 예정이며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면적 379.37㎡, 연면적 1,204.56㎡이다. 사업 주요내용은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대강당이 있다.

이날 용역중간보고회에서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많은 의견이 나왔으며, 용역업체에서는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익산=이재춘 기자